

2023년 05월 2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4편 10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88(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25장 1~6절(신약p.785)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 ◎ 말씀선포 /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처음 욥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질병이 전 세계에 퍼져 팬데믹 현상까지 가져오게 되었나?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병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엔데믹으로 간주하고 회복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각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정답을 제시하고 우리로 바로 알고 깨달아 더욱 믿음에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우리의 모든 삶에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지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장에 들어오면서 빌닷은 자신들이 더 이상 욥을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과학과 철학 등,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때로 믿은 자들

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옳은 듯합니다. 그렇기에 믿은 자들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분별하며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잘못된 지식일 뿐입니다. 빌닷은,

1. 인간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주권과 위엄을 갖추셨으며 평화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에 감히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나열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구더기나 벌레같이 초라한 존재이기에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빌닷의 주장은 피조물이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신실한 사람의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빌닷은 옴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옴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오만과 교만함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너 역시 초라한 죄인일 뿐이야.” 라고 옴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빌닷과 같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부족한 자요, 죽을 자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버지 사랑을 전하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2.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빌닷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자녀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 벌레에 비유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열어 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러한 구원의 길을 두고도 빌닷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옴은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옴의 태도가 친구들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죄인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랴 말하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저 고통과 고난으로 밀어 넣으며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293(통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 ◎ 폐 회 / 주기도문